

오륙도 칼럼



차달숙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하루 살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근심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근심을 가져온다.

지난해 화제는 단연 신종 플루였다. 사람들은 막상 지내 놓고 보면 염려하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공연히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막상 매도 맞아보고 꾸중도 들어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불행을 확대 해석하고 과대 포장을 해 밀려오는 공포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병도 알아 보면 별 고통도 아닌데 병이 들면 금방 죽는 냥 그 고통을 과장 해석한다. 병에 죽는 게 아니라 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는다. 병균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곧 잘 전염된다.

구라파에 한참 콜레라가 번질 때의 이야기다. 콜레라가 온 구라파를 휩쓸고 가자 두려움과 공포가 대륙을 휩쓸었다. 그때 한 작가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풍자하여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길에서 어떤 부인이 손을 들었다. 농부는 그 부인을 자기 옆에 태웠다.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부인은 얼

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는 없었다. 농부가 그 부인에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나 부인은 한 마디도 대답을 안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갑자기 이 농부의 마음속에 섬뜩한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질문을 하니가 할 수 없이 한참 후에 이 부인은 “나는 콜레라요”하고 대답했다. “왜 하필이면 당신은 이 도시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너 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당신 때문에 죽어간 사실을 모르십니까? 제발 마차에서 내려 주십시오.” 농부가 애절복절 사정을 하자 콜레라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마에 꼭 열 명만 죽일 것ियो. 그러나 당신만은 안 죽일 터이니 안심하시고 계속 가게 해

주시요.”

“부인, 그럼 꼭 열 명만 죽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부는 콜레라 부인으로부터 열 명만 죽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드디어 성문에 도착했다. 그런데 벌써 성문 앞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즐비하게 드러누워 있었다. 수천 명이 죽어 갔다. 농부는 화를 내면서 따졌다.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소! 열 명만 죽이겠다고 하고서 이 수많은 시체가 웬 말이요?” 콜레라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소.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질려서 미리 다 죽어 버린 사람들이요.”

이 풍자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그 자체보다도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며 약탈해 가는

지를 교훈하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실제 병에 죽는 게 아니라 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우리 속담에도 난리에 죽는 것이 아니라 겁에 죽는다는 말이 있다. 정신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을 분열 시킬 뿐만 아니라 육체를 파괴하여 결국은 건전한 삶을 죽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 우리 마음은 자력과 같아서 내부에 두려움이 있으면 온갖 두려움의 대상들이 몰려온다. 두려움의 실제란 두려움의 대상보다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불행의 정체는 결국 외국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는 것. 모든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40%의 사람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30%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과거에 대하여, 12%는 상상에 의해서, 10%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쳐 올지도 모를 일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으며, 단지 8%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걱정의 92%는 사실

실 불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이지는 비현실적이지는 걱정과 염려는 사람들을 감금시키고 불행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다.

로버트 버넷이라는 사람은 “내가 무엇에 대해 결코 근심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이를 있다. 이 두 근심 없는 날은 두려움과 공포 없이 성스럽게 보호되고 있다. 이 두 날 중의 한 날은 어제이다. 그리고 내가 걱정하지 않는 또 다른 날은 내일이다.”

로버트 버넷의 말처럼 어제의 문제와 걱정 근심을 미리 가뭇해서 내일의 문제로 근심하지 말고, 오늘에 초점을 맞추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늘 걱정 근심거리만 생긴다. 그러나 희망과 신념에 차 있는 마음은 희망과 신념에 찬 우주의 기운을 자기 쪽으로 끌어 들인다.

경인년 새해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걷고 희망을 보자.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자. 시인·수필가·부산문학 사무국장

신선대 채규중

<168>



선용의 1000자 지혜 68

색안경

살아가면서 뚜렷한 물증없이 남을 의심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남이 나를 그렇게 보기도 한다.

파란 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노란 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듯, 사람의 마음에 색안경을 끼우면 역시 그렇게 보고, 보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느냐 하는 것이다. 열자(列子)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집에 와서 비누 도끼가 없었다. 그때 마침 이웃집 아이가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분명, 저놈이 가져갔을 거야. 머쓱하게 지나가는 걸 보면 다 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웃집 아이를 보니 더욱 심증이 굳어졌다.

“저 봐. 뒤를 힐끔힐끔 보며 걸어가는 꼴을! 나의 도끼를 훔쳐간 것이 틀림없어!”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그 아이가 도둑같이 보였다. 말투며 태도며 하나하나 모두가 그러했다.

“저놈을 당장...”

독한 마음을 먹었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는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산길을 내려오는 데 무언가 발걸에 툭 채이는 것이 있었다.

“어 이거 도끼 아니냐? 누가 잊어버리고 갔지?”

그가 도끼를 집어 들고 자세히 보니 며칠 전에 자기가 잃어버린 바로 그 도끼였다.

“그래, 발이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 넘어질 뻔 했을 때 떨어트렸을 거야. 괜히 그 아이를 의심했네. 그때 내가 참기를 잘했지”

그 뒤로 이웃집 아이를 보니 말투나 행동 태도, 어느 한 가지 도끼를 훔칠 사람 같지가 않았다. 정말 착하게만 보여 잠시 그 아이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남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이웃과의 거리를 만들고 나아가 사회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새기고 아무리 오란하고 믿지 못할 세상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마음의 색안경만은 벗어야 할 것이다.

번역문화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재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시내버스 조영 어둠다

아침 출근길이나 저녁 퇴근길에 시내버스를 타고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때가 있다.

그런데 시내버스안의 실내등 조도가 어둡거나 불빛이 희미해 독서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읽을거리를 눈 가까이 가져와야 겨우 보일 정도다.

지하철이나 고속버스는 실내가 환해 언제든지 신문 잡지 등을 펼쳐볼 수 있어서 좋은데 유독 시내버스는 아예 승객들의 입장은 외면하는 실정이다. 아간에 버스 안에서 책이나 잡지를 보려면 실내 조도가 최소한 70럭스는 돼야 한다.

따라서 버스회사는 승객들의 시력 보호와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버스 요금만 올릴 것이 아니라 실내등 조도도 함께 올려 시민들의 독서고취 및 불편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유형화(문현3동)

찜질방 청결 유지

찜질방은 간이 숙박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그런데 이곳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얼마 전 찜질방에 갔을 때 찜질복의 바지 주머니에서 누런 먼뽕과 손톱깎기로 깎은 듯한 발톱을 발견하고 너무나 불쾌하고 난감했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견인 실시

우암1동 동일아파트 근처 삼거리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견인해달라는 우암1동 이상춘씨의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조언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유엔로(성지고등학교~동일아파트) 구간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단속 관리함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

속 및 견인 등을 통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통행정과·정찬운>

단속카메라 설치 불가

감만동 8부두 입구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건의하신 감만동 권오춘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건의지점은 우암로와 신선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이며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 통행량이 많고 특히 운전자들이 진행방향 직진호시 차량을

이영석(우암1동) 대학로 일대 환경정화를

경성대·부경대 일대가 요즘 북적거리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듯해 가슴이 벅찼을 때가 있다. 하지만 물리는 인파만큼 쌓이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가게를 알리는 전단광고가 바닥에 함부로 너무러져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며 이것을 찾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만큼 이 일

점지하지 않고 신호위반해 그대로 진행, 정상적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의해 건너는 보행자들과 교통사고 우려가 많은 지역으로 단속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단속카메라설치는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통정체시 카메라 오작동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신호 및 단속 카메라설치가 불가합니다. 앞으로 교통경찰을 수시로 배치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부경찰서·이현욱>

■독자의 시

다림질을 하며

햇살 펴리키는 이른 아침

깨끗이 세탁한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린다.

어제의 때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흔적 없이 그대로

구겨진 주름만이 남아있다.

남편의 셔츠를 다리면서

구겨져 주름진

내 마음을 다린다.

부대끼며 긴 때가

빠져나간 자리는

잔상의 조각들이 어른거린다.

햇빛 쏟아지는 이른 아침

깊게 팬 삶의 골을 펴려고

다리미로 내 마음을 다린다.



한 미숙

용호1동

■살며 생각하며

그 아름다운 벽화



윤선자 기자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벽화 이야기는 봄을 기다리는 겨울로부터 시작되고 꽃과 그림이 가득한 푸른 남구 안에 용당동의 하루가 시작된다.

적직한 콘크리트 용당동 세관 벽이 자연과 벗 삼은 동양화로 생각과 날개 짓 하는 서양화로 연결된 한 폭의 대형 벽화가 되어 우리와 만나고 오랜만의 정겨운 소식이라 가는 이의 발걸음이 머물러 언제 완성될까? 하던 바람이 한 폭의 그림으로 싱그럽게 다가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 향을 거역할 수 없이 커피부터 내린다. 습관이 되어버린 커피 내리기 나 자신에선 하루

를 잊는 시작의 향기라고 핑계된다. 훌훌 털고 집을 나서면 벽화와 내 눈이 마주친다.

용당동 세관담장 그 아름다운 벽화 이야기는 고전과 현대와의 어우러짐을 주제로 제1구간은 화사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주는 나비 그래픽화 제2구간은 동양화의 아름다운 숨겨진 예술적 정서화로서 실제 산수로 작각한 비둘기가 날아들다 죽은 해프닝과 함께 산수화를 기본으로 우리강산의 아름다움과 남구의 기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진가를 더 높이고 있다.

제3구간은 입체적 디자인과 지역의 정통성을 고려한 갈매기가 비상하는 느낌의 입체벽화로 구성되었다.

모두가 희망근로 주민과 현지 작가의 유기적인 작품이어서 인지 더욱 보는 이의 가슴에 와닿는다. 나는 제3구간을 좋아해서 언제부턴가 이 구간을 지날 때면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벽화는 오늘날 생각하는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고, 마치 지중해의 아름다운 성에서 보는 파이란 탁 트인 하늘은 맑은 공기와 함께 착시현상까지 느껴진다. 바라보는 나는 리처드브크 볼 후의 명작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비상

이 하는 건군데 나도 이제 복지관을 찾아가서 봉사활동 해야겠다"며 친구집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갓난아기 적 처음 바라보면 남구신문이 어느덧 아들도 읽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구보를 보면서 많은 주민들이 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보다 건강과 아이를 교육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자신들의 여가활동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동주민센터나 복지시설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구보를 보면 통상 아주머니는 붓기가 체빠지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며 안부를 묻고 신문을 내게 내밀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부산남구신문은 주민들이 즐겨 읽는 생활정보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구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더욱더 이웃들의 생생한 모습을 지면에 담아주길 바랍니다. 거창한 인물이나 잘난 사람들보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의 밝은 모습을 많이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다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분야의 공연소식이나 뮤지컬 등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사를 다뤄주시길 건의합니다.

아무췌록 보다 다양하고 알찬 기사를 가득 채워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구보로서의 부산남구신문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부산남구신문의 창간 1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 福 熙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50(우 608-701)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원안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